

## 李濟馬의 格致藁 中 儒略에 關한 考察 (天勢 天時를 中心으로)

趙見晟\* · 高炳熙\* · 宋一炳\*

### I. 序 論

孔子는 「天命」이란 “主觀的으로 先天的인 道德心과 客觀的으로 運命을 의미한다” 하였다.<sup>1)</sup>

孟子는 孔子의 「天命」을 性(先天的 道德心)과 命(運命)으로 分類하였다.<sup>2)</sup>

이와같은 性(知)과 命(行)을 東武는 「天勢」「天時」에서 知人의 方法으로 사용하였다.

東武는 「獨行篇」(1882년, 47才)을 지은 후 「天勢」「天時」外 7篇을 補完하여 「儒略」을 完成하였다.(1890년 55才)

「獨行篇」에서는 性인 仁·義·禮·智와 心慾인 鄙·薄·貪·懦를 설명하여 心慾論的 知人觀을 밝혔다.<sup>3)</sup> 「天勢」에서의 知人은 天과 性(知; 仁·義·禮·智)을 中心으로 宇宙와 社會와 人間과의 相互關係性에서 仁·義·禮·智가 어떤 方向으로 表現되는 가를 論하여 知人의 方法으로 삼았고 「天時」에서의 知人은 天과 命(行; 意, 心, 身, 力)을 中心으로 宇宙, 社會, 人間個人과의 關係에서 意·心·身·力(意慮臆志)이 어떤 상태이어야 知人을 할 수 있는가를 論하였다.

그러므로 論者는

「天勢」에서 知性으로서 知人에 이르는 과정과 「天時」에서 知命(行)으로서 知人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性命으로서의 知人觀을 考察하고자 한다.

### II. 資 料

#### 天 勢

1. 天勢浩濶 世會紛競 人倫蕃殖 地方曠遊	2. 權變萬術 器率萬具 行檢萬致 作處萬區
3. 權變爭點 器率爭巧 行檢爭潔 作處爭便	4. 爭點相傾 爭巧相興 爭潔相修 爭便相保
5. 天勢傾惡也 世會與利也 人倫修善也 地方保生也	
6. 傾惡之勢行智之勢也 興利之會行禮之會也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修善之倫行義之倫也  
保生之方行仁之方也

7. 天機恒轉 世途恒濫 人身恒慎 地址恒固	8. 權變欲達 器率欲顯 行檢欲貴 作處欲富
9. 欲達圖勢 欲顯圖會 欲貴圖倫 欲富圖方	10. 圖勢得智 圖會得禮 圖倫得義 圖方得仁
11. 意頭通環 心上出奇 身表行正 形止好活	12. 通環多變 出奇暗算 行正自復 好活愛得
13. 多變智也 暗算禮也 自復義也 愛得仁也	
14. 權變之心是非之端也 器率之心恭敬之端也 行檢之心羞惡之端也 作處之心惻隱之端也	
15. 萬物附地誠信者得衆 萬身行倫正直者帥群 萬器湊世默通者持統 萬權蔽天周察者用機	
16. 世間高眼衆力服豪 天下聽耳衆行從英 地上盤據衆謀歸雄 人中廣行衆議推傑	17. 何名之雄大作處也 何名之傑大行檢也 何名之豪大器率也 何名之英大權變也
18. 作處誠信積成度量 行檢正直積成涯岸 器率默通積成規模 權變周察積成聞見	19. 聞見高遠天下聰耳 規模宏壯世間高眼 涯岸洪闊人中廣行 度量深確地上盤據

20. 聞見固陋臨機劣也 規模細拙莅統劣也 涯岸卑弱行群劣也 度量淺薄成基劣也	21. 先人有心是非有心 退人有心羞惡有心 瞻前有心恭敬有心 按後有心惻隱有心
22. 先人當勢是非奮發 退人立倫羞惡持重 瞻前有大恭敬壯健 按後有衆惻隱緝密	23. 機若未達不動如山 時若來到能決如劍 與衆成功載如行舟 與大決勝持如殲弩
24. 機若詳緩何圖不全 時若必勇何往不得 與衆成功勁勁戒虞 與大決勝轉轉不懈	25. 權變非英平勢難也 器率非豪應會難也 行檢非傑正倫難也 作處非雄定方難也
26. 英然 美智未離權變 豪然 美禮未離器率 傑然 美義未離行檢 雄然 美仁未離作處	
27. 英者 有見宜智存心 豪者 有見宜禮存心 傑者 有見宜義存心 雄者 有見宜仁存心	
28. 智在權變是謂好智 好智不存其蔽有蕩 禮在器率是謂好剛 好剛不存其蔽有狂 義在行檢是謂好直 好直不存其蔽有絞 仁在作處是謂好仁 好仁不存其蔽有愚	
29. 智在存心是謂意誠 意若得誠其意無意 禮在存心是謂心正 心若得正其心無必 義在存心是謂身修 身若得修其身無固 仁在存心是謂家齊 家若得齊其家無我	
30. 天機恒轉 智者見轉 世途恒濫 禮者見濫 人身恒慎 義者見慎 地址恒固 仁者見固	
31. 天機恒轉 智者存智 世途恒濫 禮者存禮	

人身恒慎 義者存義  
地址恒固 仁者存仁

32. 天勢浩翰 英者見勢  
世會紛競 豪者見會  
人倫蕃殖 傑者見倫  
地方曠邈 雄者見方

33. 天勢浩翰 英者勞智  
世會紛競 豪者勞禮  
人倫蕃殖 傑者勞義  
地方曠邈 雄者勞仁

34. 權變爭點 點者見點  
器率爭巧 巧者見巧  
行檢爭潔 潔者見潔  
作處爭便 便者見便

35. 權變爭點 點者用智  
器率爭巧 巧者用禮  
行檢爭潔 潔者用義  
作處爭便 便者用仁

36. 意頭通環 是非皆有  
心上出奇 辭讓皆有  
身表行正 羞惡皆有  
形止好活 惻隱皆有

37. 意頭通環 衆意同智  
心上出奇 衆心同禮  
身表行正 衆身同義  
形止好活 衆形同仁

38. 仁義禮智 聖之性也  
英雄豪傑 天之民也  
點巧潔便 世之人也  
意心身形 衆之秉也

39. 仁義禮智之心 成性樂天也  
英雄豪傑之心 格物治平也  
滔滔一世之願 富貴顯達也  
億兆公同之戒 貧賤因窮也

40. 或曰吾子言 英雄豪傑之心 格物治平也

滔滔一世之願 富貴顯達也

若使一世人誤學英雄例 貪富貴則 抑或無蔽乎  
降世人心 但知楚漢之爲英雄 紛競之爲富貴  
何不明日嚴正 引古聖賢爲論乎 曰誠如是矣  
然表章聖賢 援古證今 似涉 踞傲 取毛世誘  
則 或者無益也

曰以若之論 擬之世誘則嗟嘆真是無窮

何其私己之藉茅 如其至慎 而公世之虧實 如  
其不廣乎 結尾曰

41. 周公孔子 仁義禮智之上聖也

伊尹太公 英雄豪傑之次聖也

龍逢 比干 點巧潔便之魁傑也

鐵中 錚錚 億兆愚民之魁傑也

42. 龍逢比干社稷臣也

鐵中錚錚任職臣也

周公孔子大人臣也

伊尹太公天民臣也

43. 或曰人臣 直諫而死然後 可謂社稷臣歟

曰有經國之規模 而秉心公亮者 逢干之賢也

涉名利之機權 而剛直自好者 盆成括之小有  
才未聞大道也

蕭何房玄齡 才能同歸於安社稷也

李膺諸士 輕燥同歸於盆成括也

比干諫於殷 而孔子稱仁 百里奚不諫於虞而

孟子稱知 仁者合仁者之忠 知者合知者之信

44. 是故 天心之志 恒欲濟 而人心之志 皆不欲  
奪也

欲濟者 惻也 不欲奪者 隱也

然則 無惻隱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志也

• 天心之膽 恒欲整 而人心之膽 皆不欲欺也

欲整者 羞也 不欲欺者 惡也

然則 無羞惡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膽也

• 天心之慮 恒欲和 而人心之慮 皆不欲妬也

欲和者 辭也 不欲妬者 懷也  
 然則 無辭讓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慮也  
 天心之意 恒欲周 而人心之意 皆不欲竊也  
 欲周者 是也 不欲竊者 非也  
 然則 無是非之兩端者 非天理人欲之意也

### III. 本 論

#### (1) 天 時

1. 天有天時 世有世財 人有人才 地有地利	2. 天時宜察 世財宜通 人才宜修 地利宜權
3. 地上子守 獨力難措 人中子立 獨材難任 世間子莅 獨能難當 天下子為 獨智難辨	
4. 獨智難辦 議論最良 獨能難當 謀猷最賢 獨材難任 勸勉最長 獨力難措 勞來最急	
5. 議論雖良 議論不易 謀猷雖賢 謀猷不易 勸勉雖長 勸勉不易 勞來雖急 勞來不易	
6. 時有緩急 財有闊狹 才有取舍 利有得失	
7. 商確其務 錯綜其費 研磨其覺 詳度其便	8. 延攬有交 應答有類 獎勵有徒 簡練有服
9. 朋友圖座 賓客入室 儕流瓊隅 曹屬圍住	10. 議論欲教 謀猷欲成 勸勉欲助 勞來欲趁
11. 其交耳目 其類作為 其徒衛捍 其服保護	12. 觀意相合 觀慮相同 觀膽相親 觀志相近

13. 然諾真假 約束誠偽 愛敬實譎 報復忠詐	14. 矯邪或有 牢籠或有 矯惹或有 誣罔或有
15. 知人難哲 達觀難鏡 修身難誠 濟衆難博	
16. 莫驕爾智 爾智或淺 莫矜爾能 爾能或薄 莫伐爾材 爾材或拙 莫夸爾力 爾力或孱	17. 不敬爾智 奚其為智 不敬爾能 奚其為能 不敬爾材 奚其為材 不敬爾力 奚其為力
18. 無若鄙夫 以醇為謹 無若小人 以訐為賢 無若鄉愿 以矯為飾 無若讒徒 以詐為得	
19. 莫好其奇 欲奇反劣 莫好其巧 欲巧反拙 莫好小點 小點大癡 莫好小明 小明大暗	
20. 有友耳目 抑亦與幾 有客作為 抑亦與試 有儕衛捍 抑亦與誘 有曹保護 抑亦與孚	
21. 究之以言 以實其意 探之以蘊 以實其慮 闕之以容 以實其膽 揣之以勞 以實其志	
22. 雖則以意 其意莫測 雖則以慮 其慮莫測 雖則以膽 其膽莫測 雖則以志 其志莫測	
23. 從容舒活 聞博或觀 進退密勿 廉慤或觀 安徐忠介 憤悱或觀 親近貞良 技藝或觀	
24. 雖則從容 從容未必 雖則密勿 密勿未必	

雖則忠介 忠介未必

雖則貞良 貞良未必

25. 不誠其意 莫盡人意  
不正其心 莫盡人慮  
不修其身 莫盡人膽  
不一其力 莫盡人志

26. 不誠其意 莫誠人意  
不正其心 莫正人心  
不修其身 莫修人身  
不一其力 莫一人力

27. 不誠其意 實難接友  
不正其心 實難迎客  
不修其身 實難應儕  
不一其力 實難用曹

28. 意以應友 善意善友  
心以應客 善心善客  
身以應儕 善身善儕  
力以應曹 善力善曹

29. 天與多友 中有好友  
天與多客 中有好客  
天與多儕 中有好儕  
天與多曹 中有好曹

30. 雖有好友 我意以友  
雖有好客 我心以客  
雖有好儕 我身以儕  
雖有好曹 我力以曹

31. 意安性中 知性安意  
心安物中 知物安心  
身安天下 知天下安身  
力安國中 知國安力

32. 不致知性 難為誠意  
不明萬物 難為正心  
不立天下 難為修身  
不通經國 難為一力

33. 雖未意誠 養性漸誠  
雖未心正 格物漸正  
雖未身修 任重漸修  
雖未力一 敬國漸一

34. 不反妄私 何以養性  
不精切磋 何以格物  
不高志節 何以任重  
不恥陋慾 何以敬國

35. 致知誠意 意誠能性  
格物正心 心正能物  
信天下修身 身修能天下  
忠國齊家 家齊能國

36. 何謂能性 知天事天  
何謂能物 知人治人  
何謂能天下 知立能立  
何謂能國 知欲安欲

37. 致知誠意 意誠實難  
格物正心 心正實難  
信天下修身 身修實難  
忠國齊家 家齊實難

38. 衍義曰佛氏之性 絕知宿意  
告子之心 拒物堅心  
淺士之身 苟妄尊身  
愚民之家 忘國利家  
此四者敗亡之陷穽也  
孟子曰苟不充之不足以事父母此之謂也

39. 意性之主宰也  
性意之宅室也  
意日有所得也  
性日有所積也  
意往而求知得而知而反之性也  
故得知者意也  
實求則養性也  
藏知者性也

廢積則邪意也

40. 學問之道無他求之吾意而已

思辨之道無他藏之吾性而已

是故 誠意則 擇乎

中庸 而能率性也

盡性則 左右逢原 而自誠意也

盡其心者 知其性

盡其心者 無窮用意也

知其性者 盡得性理也

性理者 文王易象 渾然全備於吾之知覺中

曰盡性

## (2) 天 勢

東武는 「天勢」에서 宇宙를 二大別하고 各各을 4 要素로 나누었다. 즉 <資料 1>에서 勢, 會, 倫, 方의 活潑, 紛競, 蕃殖, 曠邈한 상태와 <資料 9>에서 機, 途, 身, 址의 轉, 遷, 慎, 固로 二大別하였다. 또 人間을 意, 心, 身, 形의 4 要素로 나누었다. 즉 宇宙의 二大別과 人間을 관찰하여 性과 命중 性의 측면에서 관찰하였다.

첫째 : <資 1>의 次元이 宇宙의 外的 관찰이라면 <資 9>는 宇宙의 內的 관찰이다. 즉 <資 1>의 觀點은 人間의 知의 次元에서 <資 2>의 상태로 나타난다. 즉 權, 器, 行, 作의 요소는 (生活에 必要的 要素) 萬(術, 貝, 致區)로 나올 수 있으나 그것이 절제된 知가 되기 위해선 爭(點, 巧, 潔, 使)→相(傾, 與, 修, 保)의 단계를 거치며 이것은 宇宙의 次元인 勢, 會, 倫, 方과 어우러질때 傾惡(惡을 기울게 하고), 興利(利를 기뻐하고) 修善(善을 닦게 되고) 保生(生을 보존하게 된다) 한다.

이와같이 宇宙의 外的 平面的 靜의 觀點과 이에 應하는 人間의 權, 器, 行, 作이란 요소는

萬→爭→相의 상태를 거쳐 智, 禮, 義, 仁의 勢, 會, 倫, 方으로 作用하게 된다.

둘째 : <資 9>의 內的 관찰은 人間에게 應하여 欲의 次元으로 發顯되는바 欲(達, 顯, 貴, 富)하는 것은 (勢, 會, 倫, 方)를 도모하는 것이고 圖(勢, 會, 倫, 方)이 되면 得(智, 禮, 義, 仁)이 된다. 즉 權, 器, 行, 作이 宇宙의 內的 次元과 應하여 欲(達, 顯, 貴, 富)의 次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宇宙的 要素와 圖謀될 때 得(智, 禮, 義, 仁)하게 된다.

셋째 : (첫째), (둘째)에서 宇宙의 次元과 人間의 知, 欲을 비교하여 仁, 義, 禮, 智를 突出시켰다면 (<資 11~資 13>)까지 人間自體에서 仁, 義, 禮, 智를 突出시켰다.

(<資 11>에서 人間을 精神的 次元(意, 心), 肉體的 次元(身, 形)으로 二分하여 人體(體)에 對한 用을 (<資 12>에서 說한다. 그 用이 곧 智, 禮, 義, 仁이 되는바 이는 첫째, 둘째의 行, 得의 觀點이 아닌 人間自體에서 智, 禮, 義, 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當然性을 밝히고 있다.

東武는 (<資 1>~<資 13>)에 이르기까지 行(智, 禮, 義, 仁)과 得(智, 禮, 義, 仁)과 智, 禮, 義, 仁 그 자체에 對해 論했다면 (<資 14>~<資 43>)에서는 人間의 權, 器, 行, 作에서 出하는 (點, 巧, 潔, 使)者와 (雄, 傑, 豪, 英)者, (智, 禮, 義, 仁)者와 人間自體의 衆(意, 心, 身, 形)에 對하여 論하고 그 各各에 따른 智, 禮, 義, 仁와의 相關性에 對하여 論하였다.

(<資 1~13>)까지 東武는 宇宙의 次元을 二分하였으나 그에 應하는 人間의 心性은 原初의 인 단계인 權, 器, 行, 作에서부터 시작되어 行(智, 禮, 義, 仁), 得(智, 禮, 義, 仁)이 되었으므로 權, 器, 行, 作之心이 四端(是非, 恭敬, 羞惡, 惻隱)의 端이 된다고 하였다.

東武는 <資 44>에서 人間의 內部에 在하는

天心과 人心의 志, 臆, 慮, 意가 欲(濟, 整, 和, 周), 不欲(奪, 欺, 妬, 竊)의 결과로 四端之心이 생긴다 하였고, <資 14>에서 權, 器, 行, 作之心이 「四端之心」의 四端이 된다 하였으므로 權, 器, 行, 作之心→四端之心→四德으로 진행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東武는 四德에 達하는 방법을 孟子와는 類를 달리하고 있다.<考察 參照>

東武는 <資 14>에서 個人的 입장에서 權, 器, 行, 作之心과 四端之心을 論했다면 <資 15>에서 社會的 입장에서선 (萬 - 복수개념과 地, 倫, 世, 天이란 宇宙的 要素와의 만남) 權, 器, 行, 作은 誠信, 正直, 默通, 周察者가 되어 得衆, 帥群, 持統, 用機하게 된다.

이는 <資 16>에서 歸雄, 推傑, 服豪, 從英하는 발판이 된다. 즉 宇宙的 要素(地上, 人中, 世間, 天下)와 그에 應하는 社會的 要素(盤據, 衆謀; 廣行, 衆議; 高眼, 衆力; 聽耳, 衆行)와 만남에서 雄, 傑, 豪, 英이 歸, 推, 服, 從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武는 雄, 傑, 豪, 英의 정의를 權, 器, 行, 作의 확대(大) 개념이라 보았다. 즉 <資 14>에서 權, 器, 行, 作之心은 四端之心의 四端이라 하였고, <資 15>에서 복수의 개념으로 社會的 要素로 쓰일때, 誠信, 正直, 默通, 周察로 나타나며 이것이 衆의 謀, 議, 力, 行으로 나타날때 雄, 傑, 豪, 英의 조건이 되므로 人間이 소유하는 原初的인 個人的 德目인 權, 器, 行, 作이 그 근본이 된다 하였다<資 17>, 그 個人的 德目이 社會的으로 투영될때 誠信, 正直, 默通, 周察로 나타나고 이것이 人間과의 關係에서 쌓여서 이루어지면(積成) 度量, 涯岸, 規模, 聞見으로 나타나고 <資 18> 이것이 더욱 확대, 심화(高遠, 宏壯, 洪闊, 深確)되면 社會생활에서 人間의 모습은 聰耳, 高眼, 廣行, 盤據하게 되어 大衆

의 謀, 議, 力, 行의 기반이 되어 雄, 傑, 豪, 英의 조건이 된다.<資 19, 16> <표 1 참조>

東武는 <資 19>와 相對되는 개념으로 聞見, 規模, 涯岸, 度量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固陋, 細拙, 卑弱, 淺薄)으로 되는 것은 權, 器, 行, 作이 (社會的 개념에서의) 誠信, 正直, 默通, 周察하지 못하게 되므로 機, 統, 群, 基가 劣하기 때문이다.<資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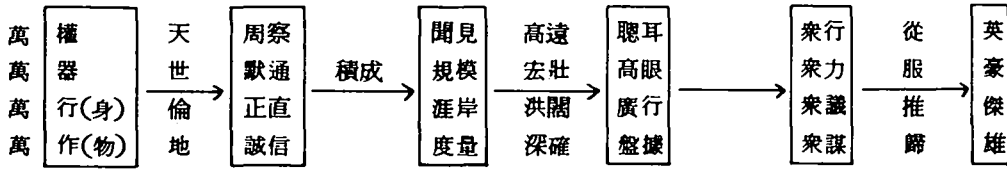
東武는 <資 14~資 19>에서 歸雄, 推傑, 服豪, 從英이 되기 위한 조건을 個人과 社會와 大衆과의 關係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음을 論했다면 <資 20~資 24>에선 人間이 社會的 상황에 제대로 應하지 못했을때 나타나는 人間象을 先人, 退人, 瞻前, 按後등으로 나타냈고, 그들도 역시 四端之心을 갖고 있고 <資 21> 그러나 제대로 社會와 適應하는 能力이 부족하므로 社會的 조건(勢, 倫, 大, 象)과 만날때 四端之心은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奮發, 持重, 壯健, 縝密)<資 22>

先人(앞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社會적 要素인(勢)를 當(맞닥드린다, 판단한다)하면 是非를 더욱 발휘한다. 그러므로 先人은 勢를 판단(是非)하여 機가 만약 未達이면 山과 같이 움직이지 말아라(不動如山). 그 결과 機가 확실히 緩하면 先(앞서가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는바(圖) 완전할것이 아니겠는가!(以下同)

退人(더디어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立倫하여 時가 來到하였으면, 劍과 같이 決하게 하고, 그 결과 時가 必勇(時를 놓치지 않고 용감하면)하면 어찌 得하지 않겠는가!

瞻前(앞에서 우러러 봄)하는 행위에도 恭敬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社會的 조건(大)를 만나면 恭敬이 더욱 壯健하게 되고 대중들

〈表 1〉 英雄豪傑이 출하는 과정  
(格物治平의 方法)



과 성공(瞻前의 상태에서恭敬의 마음가지짐이 있으며 대중들과의 사이에서 두려움을 잊고 배를 타는것같은 마음의 상태)에서는 載如行舟한다.

按後(어루만짐)의 행위에서 惻隱之心이 있고 그것이 社會的 조건(衆)과 만나면 惻隱之心은 더욱 縝密해진다. 대중과의 決勝하려면 轉轉不懈(계으름)하지 말고 당겨진 활같이(持如彊弩)되어야 한다.

東武는 先人, 退人, 瞻前, 按後등도 機緩, 時勇, 戒虞, 不懈하면 雄傑, 豪, 英이 된다고 한 것 같다.(?)

즉 東武는 雄傑, 豪, 英의 相對的 개념으로 先人, 退人, 瞻前, 按後라는 人間內部的 心性을 네가지 측면으로 상황설정하여 論하였다.

〈資 20 ~ 資 24〉

〈資 25〉; 東武는 〈資 14〉에서 權, 器, 行, 作之心은 四端之心의 端이라 하였고 〈資 21〉

에서 先, 退, 瞻前, 按後의 상황도 四端之心이 있다 하였으므로 先, 退, 前, 後의 상황도 權, 器, 行, 作의 原初的인 德을 갖음을 알 수 있으나, 平勢, 應會, 正倫, 定方하기 위해선 英, 豪, 傑, 雄의 權, 器, 行, 作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權, 器, 行, 作은 누구나 갖는 가장 기본적인 德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使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資 26〉에서 英, 豪, 傑, 雄이 아무리 美한 智, 禮, 義, 仁을 갖는다해도 가장 기본적인 權, 器, 行, 作은 떠날 수 없다 하였다.

〈資 27 ~ 資 29〉; 英, 豪, 傑, 雄엔 마땅이 心에 智, 禮, 義, 仁이 있고, 權, 器, 行, 作에 근거한 四德은 好(智, 剛, 直, 仁)이라 했고 權, 器, 行, 作에 근거하지 않는 四德은 그 蔽가 蕩, 狂, 絞, 愚에 있다 하였다. 즉 權, 器, 行, 作이 없는 四德은 蕩, 狂, 絞, 愚로 된다.

〈표 2〉

	四端之心		英雄豪傑에 이르는 方法論			?
先人	是非有心	機	不動如山	機緩	事	太陽
退人	羞惡有心	時	能決如劍	時勇	身	太陰
瞻前	恭敬有心	衆	載如行舟	戒虞	心	少陽
按後	惻隱有心	大	持如彊弩	不懈	物	少陰



또 四德이 權, 器, 行, 作에 있지 아니하고 存心이 있으면 이를 各各 意誠(意가 精誠스러움) 心正(심이 올바름) 身修(身を 닦음) 家齊(家を 구제함)이 되고 意가 만약 誠을 得하게 되면 그때의 意는 다함이 없는 意가 된다.(以下同)

즉 東武는 仁, 義, 禮, 智의 四德이 權, 器, 行, 作에 在하는 경우와 心에 在하는 경우를 비교 설명하여 前者인 경우엔 好(智, 剛, 直, 仁)과 蕩, 狂, 絞, 愚의 兩面性이 나올 수 있으며 後者인 경우엔 意誠, 心正, 身修, 家齊(이는 誠意, 正心, 修身, 齊家가 되는 과정)가 나온다 하였다.

또 東武는 仁, 義, 禮, 智가 各各의 次元에 따라서 發하는 方法論에 對해 論하였다.<資 30~資 37>

첫째 : <資 7~資 10> 宇宙의 次元도 人間의 次元과 마찬가지로 生命體로 보아 動的, 즉 人間의 欲→圖→得(仁, 義, 禮, 智)로 나타나며 이때 仁, 義, 禮, 智者도 宇宙의 次元인 轉, 遷, 愼, 固를 본다. 이와같은 宇宙의 상태와 人間의 欲, 圖, 得상황에선 仁, 義, 禮, 智者는 存(仁, 義, 禮, 智)의 상태이다. 즉 智者 見轉(宇宙와 我 : 外部로부터 同質性 인식), 存智(그로 인한 자아 성찰)

둘째 : 宇宙의 平面的, 巨視的, 靜的 상태에서 英, 豪, 傑, 雄者는 宇宙의 視點과 同一한 次元에서 勢, 會, 倫, 方을 보고 周察, 默通, 正直, 誠信→聞見, 規模, 涯岸, 度量→聽耳, 盤據→來行...謀의 과정에서 出하므로 勞(智, 禮, 義, 仁)한다.<資 15~19>

셋째 : 宇宙의 視點은 '둘째'와 같으나 權, 器, 行, 作이 萬→爭→相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點, 巧, 潔, 使者는 權, 器, 行, 作에서 나타나는 點, 巧, 潔, 使을 보고 用(智, 禮, 義, 仁)한다.<資

1~6>

넷째 : 오직 人間自體를 기준으로 하여, 先天的으로 四端之心이 있으므로 大衆의 意, 心, 身, 形은 個人의 四端之心이 發하여 되므로 同(智, 禮, 義, 仁)이라 한다.<資 11~13>

東武는 宇宙와 그에 應하는 人間의 次元을 四分하여 論하고 그들이 仁, 義, 禮, 智란 틀 안에서 관찰할때, 存, 勞, 用, 同의 次元으로 설명했고,

論者は ① 存의 상태란~欲, 圖, 得의 상황으로 짐작컨데, 이미 仁, 義, 禮, 智가 存在하는 상태로 보아~聖之性(仁, 義, 禮, 智)

② 勞의 상태란~萬(權, 器, 身, 物)이 宇宙的 요소(天, 也, 倫, 地)와 합하고 誠信, 正直, 默通, 周察등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므로 <표 참조>~天之民(英, 雄, 豪, 傑)

③ 用の 상태란~權, 器, 行, 作이 萬→爭→相의 상태를 거쳐 行(智, 禮, 義, 仁)하므로 전형적인 人間相을 나타내므로 ~世之人(點, 巧, 潔, 使)

④ 同의 상태란~人間自體에서 四端之心이 出하므로 大衆과의 社會生活에서는 同(仁, 義, 禮, 智)~衆之秉(意, 心, 身, 形)

그러므로 仁, 義, 禮, 智之心이란 存의 상태이므로 이것 자체가 性을 이루고(理의 개념) 樂天<sup>3)</sup>한다.(性이 스스로 그러한 바를 즐긴다)~선천적인 性

• 英雄豪傑之心이란 勞(仁, 義, 禮, 智)의 상태로 格物하여 治平하게 하는 마음가짐이다.

伊川<sup>4)</sup>은 格物에 對하여 '事物의 理를 窮究把握하는' 뜻으로서 格物窮理의 方法으로 先天的인 理性知와 後天的인 經驗知를 綜合함으로써 끊임없는 內外涵養을 하면 어느때에 이르러 豁然貫通의 경지가 열린다는 뜻.....

東武의 格物方法은 다음과 같다.

(1) 人間이 소유하는 萬(物, 身, 器, 權)에서 選別된 誠信, 正直, 默通, 周察의 자세

(2) (1)의 기운이 積成된 聞見, 規模, 涯岸, 度量의 상태

(3) (2)의 기운이 發展, 深化된 聰耳, 高眼, 廣行, 盤據한 상태에서 대중의 謀, 議, 力, 行이다.

• 滔滔一世之願이란 用(仁, 義, 禮, 智)의 상태로 爭→相의 상태를 거치는 黠巧潔使者인 세상사람들(世之人)이 傾惡(惡을 기울게 함), 興利(이익을 기뻐함), 修善(善을 닦음), 保生(生을 보존함)의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상태이므로 富貴(顯達)<sup>6)</sup>이란 누구나 願하는 상태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道로써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處하지 않음으로 東武는 黠巧潔使者의 滔滔一世之願을 富貴顯達이라 하였다.

• 億兆公同之戒란 同(仁, 義, 禮, 智)의 상태로 人間自體內에 四端之心이 있으므로 이것은 天命的인 것이다.

貧, 賤(困, 窮)이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나 마땅히 道로써 얻을 것을 얻은 것이 아니더라도 버리지 말것을 경계하였다. 즉 사람이 이것을 싫어해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意, 心, 身, 形의 四端之心은 道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自體에 先天的으로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道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버리지 말것을 경계하였다. <資 40>에서 위에서 언급한 格物治平과 富貴顯達에 對하여 부연한다.

英, 雄, 豪, 傑들이란 格物하여 治平하는 것이 도리건만 黠巧潔使者들처럼 富貴顯達을 貪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즉 東武는 羞等的 人間觀에 의해 性에 있어서도 羞等を 두는바 世上일에도 私己之 藉茅(떠갈자리 하나에 마음을 둠)와 公世之 虧簣를 例로 하여 誤學을 경계하였다.

<資 41~43>에 이르기까지 歷史的 人物들을 비유하여 羞等的 人間觀을 설정하였다.

1) 周公<sup>6)</sup>~周나라 정치가, 文王의 아들이며 武王의 동생 존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밥을 먹는 동안에도 세 차례씩이나, 입에 물고 있던 음식을 뱉어내면서까지 찾아온 관원을 接見하는 등” 조금도 잘난체하지 않는 태도, 제후라 해서 콧대를 세워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마음 씀.

2) 公子<sup>7)</sup>~그의 先祖는 宋人이며 魯나라로 피신, 이름은 丘, 子는 仲尼 天下를 돌아다니면서 道와 德을 說하나, 누구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정치에 손을 땀.

3) 伊尹<sup>8)</sup>~殷나라 湯王의 宰相이 되어 도우면서 無道한 暴君 桀王을 토벌하여 南巢로 추방시키고 湯王을 높이며 황제로 모심.

4) 太公<sup>9)</sup>~周나라 文王시대때 呂尙의 아버지, 이름은 李榘 “마땅히 성인이 있어 周나라로 올것이고 周는 그 사람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함. 즉 시대를 기다리면서 제후의 우두머리로서 天下의 王이 될 사람을 보필하는것을 기원함.

5) 龍逢, 比干<sup>10)</sup>

龍逢은 夏나라 최후의 임금인 桀王의 신하요 比干은 殷나라 말기의 임금인 紂王의 신하로서 두사람이 성인 君主는 모두 暴君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면으로 맞서고, 그들의 暴舉를 극력 諫했으나 결국 그 暴君들에 의해 피살됨. 太宗과 魏徵과의 대화에서 良臣과 忠臣의 區別을 論하는 자리에서 龍逢과 比干을 忠臣에 비유 설명하고 魏徵은 良臣이 되게 해달라고 太宗에게 바람. 즉 섬기는 임금이 따라 良臣도 되고 忠臣도 됨.

6) 鐵中, 錚錚

쇠중에 좋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통사람보

다 약간 나은 사람을 비유함.

東武는

1) 周公과 같이 人間이 갖는 四德性을 몸소 실천하는 者와 孔子와 같이 道와 德을 說하는 者를 仁, 義, 禮, 智之上聖이라 하여 德行이 높은 사람으로 보아(大人臣)이라 했다.

2) 伊尹과 같이 스스로의 力으로 無道한 暴君을 추방한 용기와 太公과 같이 時代를 기다리는 者는 天時와 人道를 아는 者로 格物治平하므로 英雄豪傑도 次聖也라 하였다.(天民臣)

3) 龍逢, 比干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여 옳다고 여기는 일은 끝까지 관철시키는 용기는 萬가지의 權, 器, 行, 作中, 爭(黠, 巧, 潔, 使)하는 기운에서 오므로 黠, 巧, 潔, 使之 魁傑이라 하고 이들은 나라의 安危를 맡길만한 重臣이므로 (社稷臣)이라 했다.

4) 鐵中 錚錚과 같이 보통사람보다 약간 나은 者는 億兆愚民의 魁傑이라 하여, 직무를 맡길만하다 하여 (任職臣)이라 하였다.

<資 43>에서

東武는 逢干(龍逢, 比干) 盆成括, 蕭何와 房玄齡, 李膺, 白星奚를 引用하였다.

1) 蕭何<sup>11)</sup> ~國家를 다스려 백성을 어루만지고, 군량을 전선에 공급하여 양도를 한번도 끊이지 않게 하지 않은 내정면이나 병참적 기량면이 뛰어나다. 漢나라 王인 유방은 소하와 子房(계획을 실천에 옮기는데 뛰어나), 韓信(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取하는 실질적 수완이 뛰어나)을 이용하여 天下를 얻게 되었다.

2) 房玄齡<sup>12)</sup> ~唐의 太宗때 사람으로서 太宗과의 대화에서 “국가의 처음에는 많은 영웅이 일어나니 힘을 겨루어서 뒤에 그를 신하로 합니다. 그러므로 守成보다 創業이 더 어렵다”고 하였다.

3) 盆成括<sup>13)</sup> ~齊나라 사람으로 盆成이 성, 括이 이름, 孟子에게 가르침을 받음, 孟子는 盆成括이 齊나라에서 벼슬을 하자. 그의 제자들에게 “盆成括이 죽었구나”라 하여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曰”그가 약간의 제주는 있으나 君子之 大道를 모르므로 도리어 그의 재주로서 자기의 몸을 망치기에 충분했었다”라고 했다.(즉 君子之大道를 배우지 않고 잔재주만 가지면 몸을 위태롭게 한다.)

4) 百里奚<sup>14)</sup> ~우(虞)나라 사람으로 晉나라 사람들이 靑( )나라를 토벌하기위해 우나라를 통과할것을 요구했으나, 官之奇는 우공에게 길을 비켜주지 말것을 謙했으나, 百里奚는 謙하지 않았다. 왜냐면 謙해도 우공이 듣지 않을것을 알고, 또 우가 곧 망할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후 그는 秦穆公(秦穆公)이 함께 일할만한 임금인것을 알고 晉의 재상이 되어 秦穆公을 후세에까지 유명하게 하였다. 賢者가 아니고서 그런일을 할 수 있을까? 즉 出, 處, 進, 退의 정당함을 천명하였다.

東武는 社稷臣으로서 龍逢, 比干을 例로 하고, 蕭何와 房玄齡을 같은 부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에 相對되는 人物로 李膺과 盆成括을 例로 하였다. 또 謙하는 方法에 따라

① 比干의 방법은 孔子는 ‘仁’이라 하였고

② 百里奚의 방법은 孟子는 ‘知’이라 하였다.

孔子는 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것’이라 했고 知란 ‘사람은 잘 아는것’이라 했다. 그러나 知와 仁은 서로 떨어져 성립할 수 없다 하였다.

또 孔子는 仁道를 가르치기 위한 方法論으로 ‘文, 行, 忠, 信’의 네가지를 제시하고, 忠과 信은 義에 해당하는 것으로 忠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고 信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라 하고 그러므로 仁道를 직각하는 주관

적 공부는 忠이며, 이것이 사회적 실현요소로 작용할때의 첫째 요건이 信이라 했다.<sup>14)2</sup>

그러므로 東武는 仁의 차원이 仁者合仁者인 경우는 忠으로 나타나고 智者合智者인 경우는 信으로 나타난다 하였다.

《1》心身の 次元에서의 仁, 義, 禮, 智

東武는 人間을 心과 身으로 兩分하고(天勢) 心の 상황도 宇宙의 氣運 상황에 따라 應하면서 各各의 心的 상황을 전개하고 또 身에 先天的으로 구비되어있는 仁, 義, 禮, 智란 四德目이 人間の 心的 상황의 전개에 따라 어떤 樣相으로 표현되는가를 밝히면서 그 各各에 의한 人間群을 설정하였다.

① 즉 宇宙的 要素를 勢, 會, 倫, 方(活翰, …)과 機途身址(轉, 躄, …)의 2次元으로 나누고 各各의 상황에서 ‘權, 器, 行, 作’이란 “四端之端”을 매개체로 하여

i) 萬→爭→相→…→行(智, 禮, 義, 仁)의 勢, 會, 倫, 方으로 나타내었고, 이런 상황에서(黠, 巧, 潔, 使)者는 用(智, 禮, 義, 仁)하고

ii) 欲→圖→得(智, 禮, 義, 仁)으로 나타나고 (智, 禮, 義, 仁)者는 存(智, 禮, 義, 仁)하고

iii) 權, 器, 行, 作의 社會的 개념하에서는 (萬~)(誠信, 正直, 默通, 周察)과 大衆의 (謀, 議, 力, 行)에 힘입어(度量, 涯岸, 規模, 聞見)이 되어 (聰耳高眼, …)하게 되면 (英, 雄, 豪, 傑)者는 勞(智, 禮, ~)하게 된다.

② 東武는 身의 次元에서는 意, 心, 身, 形으로 나타내었다. 즉 先天的으로 精神과(意, 心) 肉體(身, 形)을 同時에 受用하는 具體的 存在로서의 人間을 意, 心, 身, 形으로 나타내었다. 先天的으로 具備되어 있는 仁, 義, 禮,

智(孟子的 性善說과 유사하나, 東武는 身에서, 孟子는 心에서 관찰)가 大衆의 (意, 心, 身, 形)에 있어서는 同(智, 禮, 義, 仁)으로 나타난다.

즉 意, 心, 身, 形에서는 先天的인 仁, 義, 禮, 智가 나오고 心の 개념下(權, 器, 行, 作)에선 宇宙의 氣運(所以然: 存在의 理)에 영향받아(同~) 人間の 四德(所當然; 當爲의 理)을 各各 3가지의 형상으로 나타내었다.(存, 勞, 用~)

《2》孟子와 東武의 修養論

1) 孟子는 사람의 몸에 四肢가 붙은것처럼 人間の 마음속에 四端이 있고 이를 확충 실행하면 四德이 된다 하였고 이를 實行하기 위한 人間の 修養에는<sup>15)</sup>

① 적극적 방법론~良知, 良能(선천적으로 四德을 직각 實行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발휘함)⇨存心(自反)…誠

② 소극적 방법론~耳, 目之官(外物에 感受하여 心の 慾望을 일으킴)을 心の 命에 따르도록 함)⇨求放心(寡欲)

2) 東武는 ① 人間の 內部에 在하는 權, 器, 行, 作의 수많은 경우중 爭(黠, 巧, 潔, 使)하여 相(傾, 興, 修, 保)하는 결과가 (孟子는 이것을 良知, 良能으로 표현한것 같음) <資 5, 6>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人間이 가지고 있는 爭→相의 實行力과 天命인(勢, 會, 倫, 方)을 받은 덕분이다. 즉 東武는 孟子의 四德에 도달하는 積極的 方法論을 爭→相→…의 관점에서 論한것 같다.

② 孟子는 人間慾望의 發顯은 耳目之官에서 感受되며, 이는 人間の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였다. 東武는 權, 器, 行, 作에는 欲(達顯貴富)하고자 하나, 이것이 宇宙的 要素로서의 勢, 會, 倫, 方과 만나면(孟子는 이를

心の命에 따르도록 함. 즉 求放心으로 본것 같다.) 得四德하므로 孟子的 소극적 방법론은 東武의 欲과 圖의 관점에서 관찰된것 같다.

③ 孟子가 存心과 求放心등의 心的 관점에서만 四德을 論했다면 東武는 具體的 在存로서의 身的 상황에서 先天的인 四德을 論하고 權器行作(四端之四端)의 心的 상황에서 四德의 다양성을 論했다.

《3》權, 器, 行, 作과 四端과 四德의 관계 東武의 관점에서 孟子的 四端은 權器行作이 存, 勞, 用(仁, 義, 禮, 智)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관찰되며 <資 14>에서 權器行作이 四端之四端임을 밝혔다.

東武의 四端은<sup>17)</sup> 「志貌」에서 天心의 志, 臆, 慮, 意가 欲(濟, 整, 和, 周)하고 人心의 志, 臆, 慮, 意가 不欲(奪, 欺, 妬, 竊)하여 생긴다 하였다. 즉 天心과 人心이 습한 개념이므로 「天勢」에서는 天心을 '勢, 會, 倫, 方'으로 표시하고 人心을 爭~→相~ 혹은 欲~→圖~의 개념으로 해석한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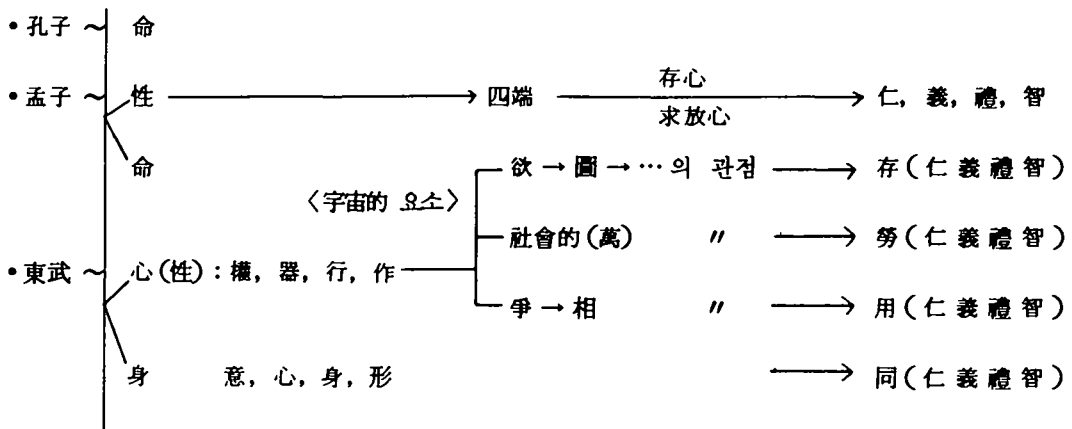
以上에서 東武의 四德에 대한 관점은 孟子的

그것과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즉 孟子가 仁, 義, 禮, 智란 범위內에서 人間의 心性을 論했다면 東武는 그 틀에서 벗어나 人間에게 자율성을 무과하여 羞等的 人間像을 내세우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存, 勞, 用, 同의 仁, 義, 禮, 智로 파악하였다. 즉 絶대적 道德的 목표로서의 四德이 아니라 人間중심에서 四德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관찰하였다.

<표 3>에서 孔子의 命을 孟子는 性과 命으로 二分하였고 人性이 四德에 이르기 위해서는 ① 內的으론 存心, ② 外的으론 求放心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東武는 存心, 求放心 대신에 「天勢」에서 欲→圖, 爭→相 혹은 사회적 관점 등으로 표현하여 絶대적 가치의 仁義禮智가 아닌 상대적 가치의 仁義禮智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孟子的 命<sup>18)</sup>이 「人間이 어쩔 수 없는 富貴나 長壽등 운명적인 것으로 論했다면 東武는 孟子的 命도 人性의 한단면인 欲의 次元으로 보았고, 이것이 宇宙的 要素와 만날때도 得(仁, 義, 禮, 智)한다 하였다.

<表 3>



(同一한 觀點)

그러므로 東武의 人性內에는 孟子의 性과 命의 개념이 모두 포괄되고 따로 具體的 人間으로서의 身(意, 心, 身, 形)의 개념을 설정한것 같다.

孟子는 人性은 善하고(良知, 良能), 惡은 耳, 目的 官이 外物을 感受하여 心을 유인, 욕망을 일으킨다 하였다. 즉 善은 心에서 나오고 惡은 耳, 目으로 因한 것이라 하였으나 東武는 孟子의 良知, 良能의 힘을 발휘하는 과정을 爭→相, 欲→圖 등으로 설명했으며 또 조건적으로 우주적 요소를 매개체로 하여 발휘된다고 하였으므로 孟子의 “性은 절대적 善”의 차원이 아니라 “爭과 欲의 次元등과 같은 상대적인 性(甲, 勞, 存)의 개념이므로 그 善도 절대적 의미의 善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身의 次元에서 意, 心, 身, 形은 곧 仁, 義, 禮, 智라 했으므로 東武는 具體的 人間像을 善의(性善) 입장에서 관찰한것 같고 이는 孟子의 耳, 目에서 欲이 出한다는 觀點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孟子의 性善이 心的次元으로 국한시킨 것이라면 東武는 具體的 人間(意, 心, 身, 形) 자체가 善이라 보았고 性엔 相對的인 善이 존재한다고 본것 같다.

## B. 天 時

東武는 『天勢』에서 知人의 方法을 空間的 觀點에서 궁극적으로 仁, 義, 禮, 智를 通하여 밝혔다면 『天時』에선 時間的 觀點에서 知人의 方法을 궁극적으로 人間의 意와 性을 通하여 밝히고 있다.

東武의 論理전개방법은 『天勢』와 마찬가지로 『天時』에서도 宇宙의 要素→社會的 要素→個人的 要素→性意의 方法으로 歸結되므로 이에 對해 考察하고자 한다.

<資1>에서 宇宙의 要素는 各各 時, 財, 才, 利라는 所有개념의 物的 次元으로 규정하고, 그 當爲性(理의 개념)을 察, 通, 修, 權으로 나타내었고<資2>, <資3>에서 宇宙의 要素의 ‘宜’에 應하는 社會的 要素로서 子(혈) 守, 立, 莅, 爲이며 이것은 個人的 知覺과 認識 능력인 智, 能, 材, 力으론 어려우므로(難措…) 社會的 概念(복수)인 議論, 謀猷, 勸勉, 勞來가 바람직하다.(良, 賢…) <資4> 그러나 議論, 謀猷, 勸勉, 勞來가 그렇게 쉽지 않으므로 그 方法論을 계속 서술해 가고 있다.<資6~9>

<資6>에서 宇宙의 시간적 개념은 物的 次元이므로 各各의 要素는 變化를 나타낸다.(緩急, 闊狹, 取舍, 得失) 이와같은 개념이 個人에 各各 적용될때 智, 能, 材, 力은 各各 適確~, 錯綜~, 研磨~, 詳度~ 등으로 나타난다.<資7>

그러나 <資3>에서 처럼 個人的 智, 能, 材, 力만으론 守, 立, 莅, 爲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議論…)의 方法論으로 <資8,9>을 서술하였다. 즉 交, 類, 徒, 服과, 이것이 더욱 진행되어 友, 客, 儕, 曹에 이른다.

<資10>에서 (議論, …)이 欲(求, 成, 助, 趨)란?

個人→社會의 개념으로 확대된 (議論, …)의 개념은 意, 慮, 臆, 志의 복수개념(사회적 개념)으로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 즉(仁, 義, 禮, 智)로 나아가기 위한 大衆의 욕망이다.

<資11, 12>

이것이 社會的 觀點으론 交, 類, 徒, 服의(耳目, 作爲…) 등으로 나타나고 個人的 觀點으론 意, 慮, 臆, 志의 合, 同, 親, 近으로 나타난다.

다시말하면 社會的 觀點에서 守, 立, 莅, 爲하기 위해선 個人的 智, 能, 材, 力만으론 안되고 다수의 (議論…) 등이 欲(求, 成, 助

趨) 등으로 나타내기 위해선 交, 類, 徒, 服을 (耳目, 作爲, …)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 심층적 입장에선 個人的 (意, 慮, 臆, 志)도 서로(相), 合, 同, 親, 近이 되어야 한다.(즉 意, 慮, 臆, 志→交, 類, 徒, 服→議論, …)

〈資 13, 14, 15〉

그러나 人間이 비록〈資 10~12〉에서 처럼 사회적 개인적인 노력을 할지라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

〈資 13〉에선 사회적 입장에서 然諸(승락)에도 眞과 假가 있고 약속에도 誠과 僞가 있고, 愛敬에도 實과 譎(간사함)이 있고 報復(은혜를 갚음)에도 忠과 詐가 있다. 또 〈資 14〉에서 個人的인 次元에서도 속임의 단계가 있다.(矯邪, 牢籠, 矯意, 誣罔) 그러므로 東武는 〈資 15〉에서 人間을 事, 心, 身, 物의 次元에서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東武는 天時에서 宇宙나 人間이나 二重性(變化, 資 6)이 있으므로 個人, 社會에 對한 相反된 개념을 밝히므로써 知人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① 〈資 16〉 個人的 智, 能, 材, 力이 驕, 矜, 伐, 夸에 의해 淺, 薄, 拙, 辱하게 되므로 나 스스로의 智, 能, 材, 力을 공경하여야 한다. 〈資 17〉 그렇게 되면 만약 鄙夫, 小人, 鄉愿, 讒徒가 있더라도 그들에 의해 오히려 醇爲謹(더러운 사람으로 인해 돈후하고 신중해짐) 訐爲賢(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크게 현명하게 됨) 矯爲飾(위선자들에게 실지를 숨기고 겉을 꾸밈, 즉 위선자들에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게 됨) 詐爲得(혈뜻은 무리들에게 그 혈뜻음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꾀를 써서 기만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驕, 矜, 伐, 夸하지 말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즉 驕, 矜, 伐, 夸하여 생기는

小點, 小明, 欲奇, 欲巧를 경계하였다.〈資 19〉 東武는 〈資 16〉~〈資 19〉까지 個人的인 智, 能, 材, 力이 驕, 矜, 伐, 夸에게 침식당하는 것을 경계했다면

② 〈資 20〉에서 社會的 관점에서 友, 客, 儕, 曹가 진실된 의미의 耳目, 作爲, 衛捍, 保護 〈資 11〉로 작용하면 幾, 誠, 誘, 孚와 함께 한다(?) 하였다.

③ 〈資 21〉에서 眞實된 意, 慮, 臆, 志가 무엇인가를 論하였다. 즉 究之以言(궁구하여 말함)이 그 意를 實하게는 하지만 그 意에도 誠의 有無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意대로 추측하지 말라 하였다.〈資 22〉(以下同)

東武는 그 例를 〈資 23〉에 제시한다.

즉 個人的 究, 探, 閑, 揣으로서 言, 蘊, 容, 勞에 작용하면 그 意, 慮, 臆, 志가 實한 상태에서(즉 從容; 蜜勿; 忠介, 貞良한 상태) 舒活, 進退, 安徐, 親近하게 되면 혹시 聞博(널리 듣게 됨), 廉慤(청렴하고 성실함), 憤悱(입밖에 내지 않는 분노), 技藝(솜씨, 손재주) 등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誠意, 正心, 修身, 一力이 없는 從容(천천히), 蜜勿(힘씀), 忠介(충성스럽게 도움), 貞良(곧고 어짐)만으로는 盡(意, 慮, 臆, 志)가 될 수 없다.〈資 22, 23, 24〉

『天勢』에서 具體的 인간을 意, 心, 身, 形으로 나타냈다면 「天時」에서는 意, 心, 身, 力으로 나타내었고 〈資 25〉

誠意, 正心, 修身, 一力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인간의 意, 慮, 臆, 志가 지극할 수 있을까? 라고 하였다. 또 그와같은 상태(不誠其意…)에서는 誠人의 意일 수 없다고 〈資 26〉하였다.(以下同)

또 對人과의 관계(사회적 관점)에서도 不誠其意(……)하면 接友(……)하기 어렵다

하였고, 반대로 對人과의 관계에서 (友, 客, 儕, 曹) 내가 좋은 意, 心, 身, 力으로 상대하면 相對도 善(友, 客, 儕, 曹)가 된다.

〈資 27, 28〉

東武는 〈資 20 ~ 28〉에 이르기까지 對人과의 關係에서 誠意, 正心, 修身, 一力을 강조하였고, 내가 好(善과는 구별)하는 차원에서의 對人關係를 경계하였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곳(天)엔 많은 對人關係(友, 客, 儕, 曹)가 있고 그 가운데는 好(友, 客, 儕, 曹)가 있다.

그러나 好(友, 客, 儕, 曹)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차원(즉, 나의 意, 心, 身, 力)에서의 (友, 客, 儕, 曹)이다. 즉 주관적 입장에서 對人關係이다. 그러므로 東武는 誠意, 正心, 修身, 一力하는 方法論을 論한다.

즉 〈資 31〉 〈資 32〉

意는 性가운데서 편안하므로, 性을 알면 意가 편안하다.(즉, 意는 性中에 포함되므로, 性을 알면 意는 자연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知人하는데 있어서 性을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는것은 正心스런 意(誠意)가 되는 것이 힘들고 萬物을 밝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正心하기 힘들다는 것이다.(以下同)

그러므로 致知性, 明萬物, 立天下, 通經國하면 誠意, 正心, 修身, 一力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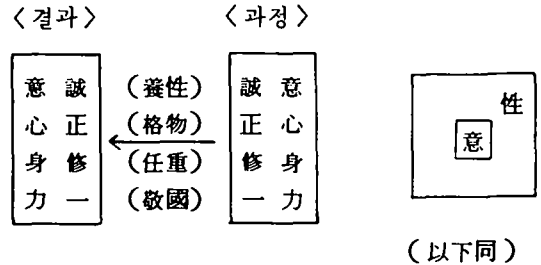
그러나 意誠, 心正, 身修, 力一에 이르기 위한 과정인 誠意, 正心, 修身, 一力(未意誠, 未心正, 未身修, 未力一)이 養性하게 되면 점차 誠의 단계로 간다.〈표 4 참조〉(以下同) (資 33)

그러면 養性 格物, 任重, 敬國의 方法은 무엇인가?

〈資 34〉에서 反妄私(개인의 거짓되고 망령됨을 반성한다) 精切磋, 高志節, 取陋愆해야

한다 하였다.

〈表 4〉



〈資 35〉 知人에 있어 精誠스럽게 意(誠意)를 致知(극진한데까지 이르게 함)하면 그 意誠은 능히 性과 견줄만 하다.

그러면 能性이란 무엇인가? ① 智天 ② 事天하는 것이다.(以下同)

東武는 性의 개념을 2가지로 설정하였다.

〈資 36〉

즉 知天이란 곧 性이요      즉 性속에 性과  
事天이란 그것의 意이다.      意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東武는 致知 誠意하더라도 意誠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資 36〉에서 처럼 知入에 있어서 性과 意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東武는 구체적인 例를 들어 性과 意, 物과 心, 天下와 身, 國과 家(力)을 비교하였다.

〈資 38〉

東武의 差等의 人間觀에 의하여 누구나 知天, 事天하는 것이 아니고 致知 誠意할 수 있는 人間에게만 知天, 事天이 가능한 것이다.

(佛氏)

따라서 佛氏, 告子, 淺士, 愚民에 各各 性一意, 物一心, 身, 國一家를 배열하였다.

東武는 이들 같이 性과 意가 相反되게 나타



날 경우는 知人하기가 어렵다 하여 이를 ‘此四者 敗亡之陽蹇也’라 하였다.

또 孟子의 말을 인용하여 不充之不足(盡性이 덜된 상태, 學問思辨이 덜된 상태)으로써 父母를 섬긴다 했다.(性和意를 구별하는 知人の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데 知人을 할려고 힘을 일컫는 말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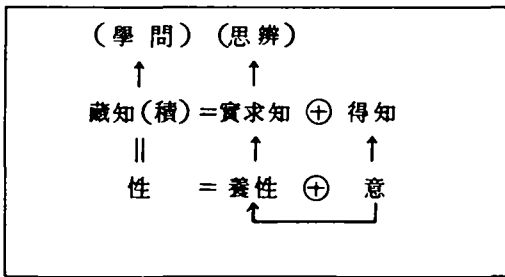
東武는 意, 心, 身, 力중 意(性)에 中點을 두어 意와 性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資 39>

- ① 意는 性을 主宰한다.
- ② 性은 意의 宅이 된다.
- ③ 意는 매일 // 일어나는 바이고
- ④ 性은 매일 // 쌓여지는 바이다.
- ⑤ 意가 움직여 求知 하는데 이는 性的 得知 탓으로 돌린다.

그러므로 得知者는 意요 藏知者는 性이요 實求則養性이다. 廢積則 邪意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廢積이란(藏知의 반대) ① 得知는 되나 實求知가 안되는 상황(養性이 안되는 상황)과 ② 實求知는 되나 得知가 안되는 상황(意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되므로 ①, ②의 상황이 나타남을 邪意라 하였다.

<資 40> 東武는 知人の 결론을 다음과 같

이 내리고 있다. 즉 學과 聞의 道는 나의 意에서 求할 뿐이고 思와 辨의 道는 나의 性에 藏되어 있을 뿐이다.

- ① 그러므로 誠意를 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 ② 중용을 지켜 능히 천성을 쫓는다.

①과 ②는; 率性之謂道 <中庸>란 性的 고요함(靜)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性이 움직여 情을 일으켜 惡을 수반하므로 본래의 性을 따라 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①의 誠意와 같은 뜻으로 誠이란 定의 의미로 不動을 가지고 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盡性(즉 率性的 靜한 상태)하면 이것이 곧 誠意가 된다.

誠意와 盡性과 같은 의미로 쓰인 盡其心하는 者<sup>19)</sup>(즉 心을 寂然하게 하여 視聽을 닫는 의미가 아닌 視聽은 밝게 하되 見聞은 일으키지 않는 마음상태 즉 致知格物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其性을 알고 用意가 무궁하다.

그러므로 盡其心(致知格物の 마음가짐)→ 知其性→盡得性理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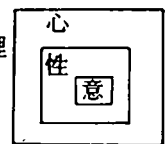
따라서 性的 理를 아는 者는 나의 知中에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모양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는 바 이를 盡性이라 하였다.

즉 원래 盡性이란<sup>19)</sup> “현상의 근원이 되는 본체적 存在가 아니고 현상을 현상으로 있게 하는 道理로서, 현상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 즉 “理와 性”이 일치된 “窮理盡性”의 道學的 사고이다.<程明道>

그러므로 東武는 知人の 방법으로 誠意, 盡性, 率性을 주장하였다. 이를 要約하면

(思辨)

- 盡其心→ 1. 知其性→盡得性理  
→ 盡性
- 2. 無窮用意



(學問)

○盡性=誠意=率性

#### IV. 總括 및 考察

東武는 「獨行篇」에서 知人의 方法에 대해 論하였다.

〈資〉에서 人間의 誠과 僞를 안다면 不惑→正心→不動心→中庸而無闕이 된다 하였다.

그러나 〈資〉에서 자기의 誠이 未盡한 상태에서는 他人의 誠과 僞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立誠한 後에야 知人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自己 誠의 立, 不立의 정도에 따라 知人之外者 知人之中心者 知人之半中心者 등과 같이 層이 생긴다 하였다.

「獨行篇」以後에 지어진 「天勢」「天時」에서도 知人하기 위한 方法論을 論하고 있다.

東武는 「天勢」에서 宇宙的 要素를 ‘勢, 會, 倫, 方’의 차원과 ‘機, 途, 身, 址’의 次元으로 二分하고 그에 應하는 人間의 原初的인 心性인 (四端之端也) 權, 器, 行, 作이 各各 萬一爭→相의 상태와, 欲→圖의 상태로 발전되며 各各行(仁, 義, 禮, 智)와 得(仁, 義, 禮, 智) 상태로 되어 各各(點, 巧, 潔, 使)者와 (仁, 義, 禮, 智)者가 나온다 하였다. →用(仁, 義, 禮, 智), 存(仁, 義, 禮, 智) 또 權, 器, 行, 作이 社會的 要素로 나타날때 즉 萬(權, 器, 身, 物)이 理의 方向(宇宙的 要素로서의 天, 世, 倫, 地)의 誠信, 正直, 默通, 周察에 의해 대중의 謀, 議, 力, 行에 힘입어 聰耳, 高眼, 廣行, 盤據의 상태로 되어 美(仁, 義, 禮, 智)하게 되어 (雄, 傑, 豪, 英)者가 된다 하였다.→勞(仁, 義, 禮, 智) 또 具體的 存在로서의 人間은 意, 心, 身, 形의 「頭, 上, 表,

止」함이 通環, 出奇, 行正, 好活 등으로 나타내며 곧 仁, 義, 禮, 智가 되어 衆(意, 心, 身, 形)에 있어서는一同(仁, 義, 禮, 智)가 된다.

그러므로 「天勢」에서 東武는 性인 仁, 義, 禮, 智를 知人의 한 方法으로 用하였다.

東武는 「天時」에서 宇宙的 要素인 察, 通, 修, 權에 對應하는 社會的 要素인 守, 立, 莅, 爲를 對象으로 삼아 그것이 되기 위한 人間心性의 內面을 밝히고 있다.

즉 守, 立, 莅, 爲이 個人의 智, 能, 材, 力만 으론 안되므로 大衆의 議論, 謀猷, 勸勉, 勞來가 필요하다 하였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社會的으론 交類從服과 友, 客, 儕, 曹의 과정이 필요하고 個人的으론 意慮膽志의 合, 同, 親, 近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도 人間의 內部엔 眞假, 誠僞, 實謬, 忠詐 등과 같은 二重性이 존재하므로 東武는 知人難哲…濟衆難博이라 한탄한다.

人間의 二重性은 智, 能, 材, 力의 驕, 矜, 伐, 夸에서 생기므로 意, 慮, 膽, 志를 究之以言, 探之以藹, 闕之以容, 揣之以勞로써 實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그렇게 하면 從容舒活하여 널리 들을지 몰라도(以下同) 그러나 그와같은 意, 慮, 膽, 志도 과연 盡( )인가?

즉 究言, 探, 闕容, 揣勞 등의 意, 慮, 膽, 志가 아닌 誠意, 正心, 修身, 一力으로서의 마음자세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誠意, ~도 주관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誠意~가 아니라 致知性에서 나오는 誠意, 明萬物에서 나오는 正心 立天下에서 나오는 修身, 通經國에서 나오는 一力이야말로 各各 能性(知天, 事天), 能物(知人, 治人) 能天下(知立, 能立) 能國(知欲, 安欲) 한다 하였다.

그러나 東武는 또한번 부정한다. 즉 致知誠義, 格物正心 信天下修身, 忠國齊家 하여도 意誠, 心正, 身修, 家齊가 진실로 어렵다 하였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意가 誠意인지 邪意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性이란 意(得知)가 養性(實求)의 상태下에서 存在할때를 말함ियो.(藏知者)

단지 得知만으로써의 意는 性일 수 없다. 그러면 그 意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學과 問에서 나오고, 性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思와 辨에서 나온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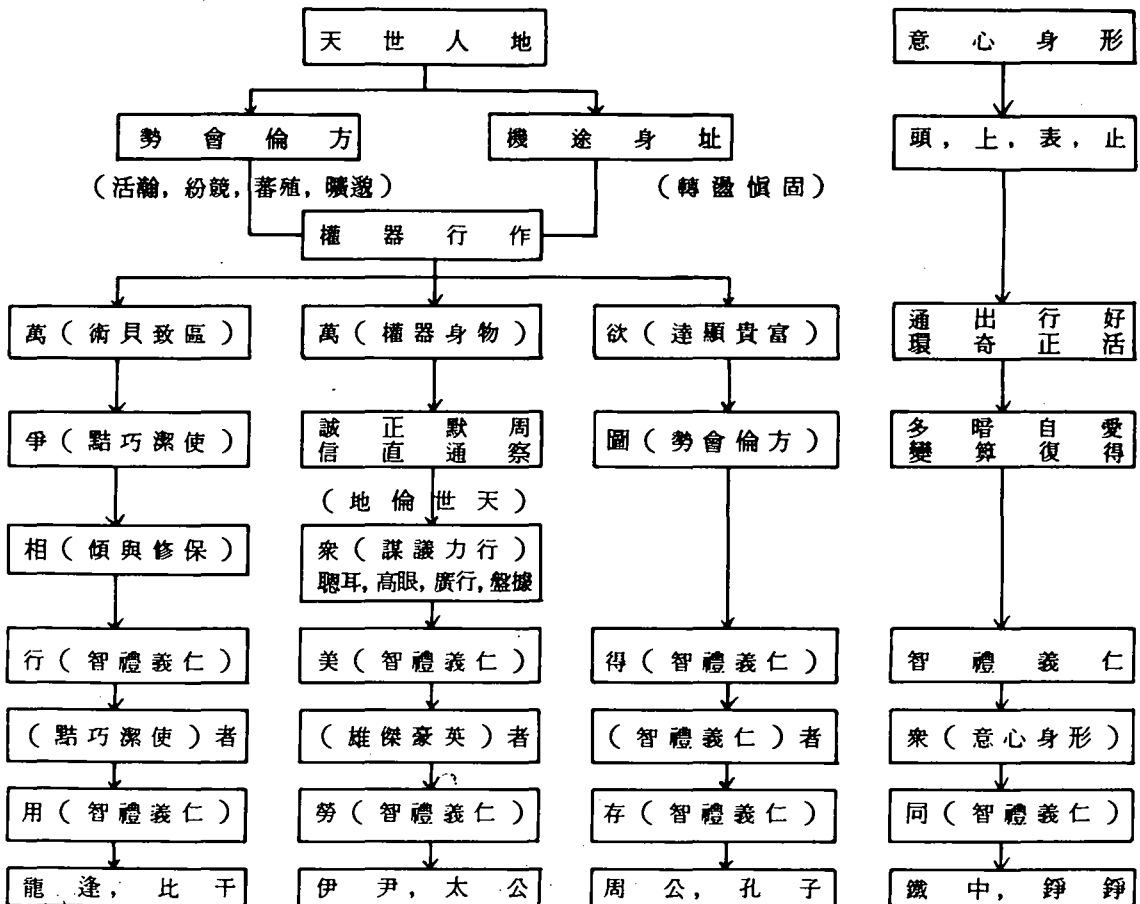
그러므로 誠스런 意이면 그것이 바로 養性한 상태下에서의 意이므로 곧 性이 된다.(盡性)

그러므로 위에서 論한 性과 意의 구별은 盡其心者(그 마음에 지극함이 있는 者)에겐 그것이 곧 性이요 意가 된다.

그러므로 東武는 知人을 위해서는 己 스스로의 盡性을 강조하였다.(知人을 위해선 盡性을 自己正己의 목표로 삼음)

天 勢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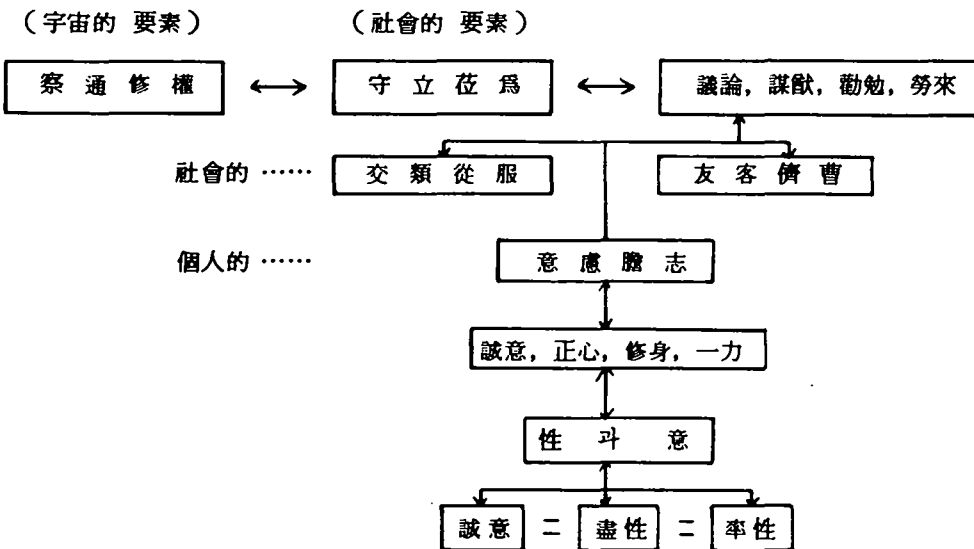
天 時

< 丑 7 >

		構成要素		當爲性	變 化			
宇宙的要素	天	天	時	宜 察	時	有	緩	急
	世	世	材	宜 通				
	人	人	才	宜 修	才	有	取	舍
	地	地	利	宜 權	利	有	得	失
		개 인	사 회		개 인	사 회		
社會的要素	天下	智(驕)	讓 論	子 爲	商 確(務)	有 交	友	
	世間	能(矜)	謀 猷	子 莅	錯 綜(費)	有 類	客	
	人中	材(伐)	勸 勉	子 立	研 磨(覺)	有 從	儕	
	地上	力(夸)	勞 來	子 守	詳 度(使)	有 服	曹	
		↓	↓			↓	↓	
		意(合)	欲 教			交→耳目	友→耳目	
		慮(同)	欲 成			類→作爲	客→作爲	
		膽(親)	欲 助			從→衛捍	儕→衛捍	
		志(近)	欲 趨			服→保護	曹→保護	

天 時

< 丑 8 >



天勢의 結論

1. 「獨行篇」이 各各에 對한 仁, 義, 禮, 智와 心慾에 의한 知人이라면, 「天勢」는 仁, 義, 禮, 智를 한 屬性으로 보아 差等的 性的 개념으로서의 知人이다.

2. 東武의 性的 개념은 孟子의 性에 差等的 人間觀을 부과하여 個別의 人間屬性에 의한 四類型的 性的 개념을 갖는다.

3. 孟子의 性善이 心的 次元에서 절대성이 요구되었다면 東武의 性善은 心과 身(意, 心, 身, 形)의 兩面性으로 관찰되며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의 性善으로 보인다.

4. 知의 新概念인 權變, 器率, 行檢, 作處의 分化가 四類型的 人間型과 그에 應하는 性으로 나타난다.

5. 孟子의 存心과 教放心은 東武의 爭→相, 欲→圖의 次元으로 보여진다.

天時의 結論

1. 知人을 위해 宇宙의 要素→社會의 要素→個人的 要素가 動員되었고 窮極의 意와 性으로 歸結되었다.

2. 誠意와 邪意의 차이는 養性的 有無에 의해 決定된다.

3. 知人을 위한 盡性的 상태는 곧 誠意요 率性이다.

4. 「天勢」에서의 知人이 天과 性(仁, 義, 禮, 智)을 中心으로한 知人이라면 「天時」에서의 知人은 天과 命(意, 慮, 臆, 志)을 中心으로한 意와 性으로 歸結된것 같다.

- 1) 中國思想史 p.60.
- 2) 宋一炳; 「이제마 철학의 학문적 배경과 사상의학 성립에 대한 고찰」
- 3) 韓國儒學史 p.31.
- 4) 韓國儒學史 p.49.
- 5) 中國思想史 p.22.
- 6) 十八史略 p.44.
- 7)~14) 十八史略
- 14)-1) 中國思想史 p.23.
- 14)-2) 中國思想史 p.26~28.
- 15) 中國思想史 p.60.
- 16) 中國思想史 p.61.
- 17) 격치고 p.44.
- 18) 中國思想史 p.180.
- 19) 中國思想史 p.195.

參 考 文 獻

1. 格致彙: 李濟馬(大陽社)
2. 韓國儒學史: 婁宗鎬(延世出版社)
3. 中國思想史: 武內義雄(羈江出版社)
4. 十八史略
5.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 成立에 對한 考察: 宋一炳.
6. 孟子.